

두 바울 The Two Pauls

야웨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과 적들을 취급하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었다. 엘리야와 다윗왕과 같은 가장 사랑 받았던 자들도 그들이 승리한 것들과 실패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마지막 때까지 지속된 것이다. 이는 '자신이 아주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 큰 용기를 북돋워 주었고, 또한 심판 때 상응되는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통탄할 처지에 있는 것을 깨닫도록 한 것이다. 야웨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참으시며, 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에베소서 4:13) 우리가 지속적으로 향상하도록 추구 하신다.

불행하게도, 어떤 자들은 이렇게 확실히 기록된 말씀들로 그들 자신을 정당화 하여 자기들의 면허증과 같이 사용하므로 계속 실패한다. 참으로, 메시아에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온전함을 제시한 것을 인수받을 필요가 없다.고 어떤 자들은 믿는다. 왜냐하면; '다윗왕이 하나님을 안 후에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다른 자들의 잘못들을 이용하여 그들 자신들의 생애에 죄들을 정당화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였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행하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제시될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로마서 2: 3- 5) 우리가 만일,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하면서, 다른 자들의 행위가 사악하다고 비판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들의 잘못들로부터 배우지 않았으므로, 확실히 우리가 야웨를 경멸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 분께서는 그들을 참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 이러한 관용으로 오래 참으시는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오직 회개하지 않은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사도가 기록하기를, "이 때에 주신 선물의 특징을 고의로 무시하여, 그들 자신들을 적대하는 진노의 잔을 소중하게 쌓을 뿐이다." 고 하였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축복하신 분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3:9) 우리가 요한이 사용한 단어 "죄"에 동기를 상기하면, 요한일서 3:4절에서 율법을 범하는 것과 "율법을 범하지 말라" 문구를 자주 사용하였다. 우리가 무시하여 지은 죄들과 반역하여 고의로 짓는 죄에 다른 점을 우리가 깨달았다. (레위기 4:2, 5:15, 민수기 15:24) 무시하여 지은 죄를 깨닫고 놀란 자들에게 (요한일서 5:16)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나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짓고 나서,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실패한 것을 사용하여, 양심을 정당화 한다 - 이러한 자들은 마음이 재창조되지 않았고 하늘과 묶여지지 않은 결과이다. 이러한 사람은 그들 자신들을 방탕에 내어 주었으므로,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난 죄들을 회개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길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다윗 왕이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는가? 엘리야가 우리의 모본이 될 수 있는가? 라고 그대가 질문할 것이다. 144,000이 - 메시아를 가장 완전하게 이 세상에 반사할 것이다.고 기록되었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임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계시록 14:4) 지금은 죽었지만 오래전에 살았던 자들에게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오직 우리의 모범이신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완전한 모범을 본 받아서 살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빛 가운데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 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20)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신격은,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하여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자신이 알고 있는 죄들을 계속 행하면서, (또 그것을 계속 가르친 자들에게) 그 분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5:22) 이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하였으되, "진실로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사도행전 17:30)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방식을 설명하지 않았으나, 갈라디아서 2:20절에서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셨다,

이는 야웨의 모든 약속이 완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며,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느니라." (마가복음 9:23) **yes** - 하늘이 우리에게 청결한 생애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바울 역시, 그가 본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윗 문단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가 진술한 것을 읽었고, 그가 또 다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빌립보서 3:17) 이것이 어떤 자들에게는 혼동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같은 장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죽은 자들의 부활 - 11절)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좇아갈 뿐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12) 바울이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변명할 수 있다고 말하였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바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고 (빌립보서 3:15) 하였다.

이 구절들에서 "온전"에 대한 언어가 그리스 언어에서 두 가지 다른 단어로 해석하여 사용되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니다. 바울이 내가 "이미 온전" 해졌다 함도 아니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 언어로 **teleioo** 이며 이 뜻은 "완전하게 행하여 끝을 낸 것이다." 바뀌 말하면, 바울이 아직도 자라기 위하여 더 많이 배울 것이 있었다. 이는 메시아께서 비유담으로 말씀하신 추수를 거기에 적용한 것이다. 하늘에서 주시하는, 성화된 생애는,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패고, 그 후에는 이삭에 낱알이 가득하게 된다." (마가복음 4:28) 바울이 두 번째로 정의를 내린 단어, 낱알의 모든 단계가 완전한 것을 말한 것이다. 그가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 이라고 기록한 것은, 다른 단어와 연관되는 **teleios** 이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하게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어떤 정의를 여러 가지로 내리면 중복이 되지만, 이 다른 두 단어들의 말뜻에 동기가 분명한 것이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헌신하면서, **teleioo**에 완전한 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계속 자라고 있는 동안에도 온전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온전하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온전"은 두 번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분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말씀하신 온전에 의도는, 순수함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는 야웨 너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신명기 18:13) 바울이 온전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서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3:15)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장 분명하게 지적한 것은, 오래 참으시는 야웨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나타낸 것이다. 바울이 이 점에 대하여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설명하였다. 아무튼, 성경이 말하기를, 이러한 일관성을 방패로 삼고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도 개심한 후에, 그가 알고 있는 잘못들을 행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 그들이 다음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면서도 "어디에서?" 라고 질문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서 자신 있게 응답한다.

로마서 7장에 키를 이해하기 위하여 바른 곳을 읽어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 7장 이전에 로마서 6장과 다음 장 8장이 연결되므로 분리시킬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두 진술이 아주 자연스럽게 로마서 7장과 부합된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1-4)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 1,8,9,13)

로마서 6장과 8장에서 바울이 지적한 것은 "새로운 생애"를 사는 사람은 죄에 죽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 요한도 그와 같이 생각한 것이 많은 세월 후까지 메아리친다. 복음이 그 모든 세월을 통하여 변경되지 않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 2000년 후에도 이 말씀들에 구절들이 변경되지 않았다. 로마서 7장을 기록한 목적은, 바울이 계속해서 죄짓는 것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 - **yes**. 야웨 하나님께서 육신이 (영을 적대하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이 유추법을 사용하였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로마서 7:2,3) 그때 그가 이것을 죄의 법과 그리스도 안에 자유의 법을 적용하였다: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4절 5절)

여기 로마서 7장에서 두 바울에 대하여 말한다. 4절과 5절에서 사도가 정신적인 작용에 기간을 소개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죄"에 죽은 자들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 안에 있을 동안"에는 아직도 우리가 "옛 사람"에게 결혼한 상태이므로, 다른 자 즉 그리스도와 결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일찍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 구절들을 왜곡하고, 이 말씀을 혼동하는 많은 자들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동안에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정당화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예언한 것처럼, "그들 자신을 멸망케"한다. (베드로후서 3:15,16)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적하기를,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아 행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정연하게 행하고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에레미야 7:9,10) (히브리어 번역 성경)

우리가 로마서 6장과 8장을 적절하게 맞추기 이전에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시간적인 구성 요소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장의 목적은 중요한 두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1) 유혹을 받으면 우리의 육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2) 우리가 이 육신에 노예일 동안에는, 그리스도에게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이 법 아래 있을 때, 회개하기 전에 경험한 것과 죄에 죽기 이전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한 것이다.

우리가 이 장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이것이 분명한 실례가 됨을 알 수 있다. 4절과 5절에서 (그때, 그가 법 아래 있었고, 지금은 법에게 죽게 된) 기간 동안에 작용된 것을 소개한 것이, 바울 안에서 진척되는 경험을 설명한 것이다. 그 사건을 간략하게 말하면: 바울이 법에게 순종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과거 시제) 죽었다." (6절) 역시 기록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한 동기를 말한다. (7절) 기록한 영에 표준에 따라서, 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그 자신이 죽음에 합당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8-12절) 비록 그 자신의 영이 순종을 원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이 그를 방해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14-17) 육신에 욕망과 관련된 죄가 여러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육질의 현상이므로, 재창조 되지 않은 죄인 안에서는 죄가 정복될 수 없고 죄를 극복하기가 어렵게 된 것을 발견한 것이다. (18-23절) 결론적으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낼 것인가?" (로마서 7:24) 라고 그가 자신의 상태를 비탄하고 울부짖은 것이다.

만일 이 장에서 바울이 생각한 것으로 고리가 끝났다면, 우리가 참으로 바울의 비탄한 상태 안에 버려진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7장 한 구절에서 그가 계속 생각한 것이 8장이다. 로마서 7장 25절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만일 우리가 이 성경절에서 버려진 바 되었으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보라, 그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유롭게 되었고 개심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육신 안에서 죄를 섬기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로마서 8장의 첫줄을 읽어야 한다. 바울의 편지서들이 성경에 장과 장 사이를 단절하지 않고 계속 논설함을 기대하고 읽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기록의 참된 목적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고정시키고, 로마서 7장 25절이 마지막인 것으로 끝내어 읽고, 우리가 죄 안에 있으면서 죄 안에서 안전한 것처럼 자리잡을 수 없는 것이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을 연결하여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독자들을 그의 이전 상태로 되돌린다.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때에도, 그의 육신은 여전히 악하고 유혹 받기 쉬움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그를 이끌어 내신 분 때문에, 이제 그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순종)하지 않지만, 여전히 육신은 죄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 때문에, (히브리서 4:15) 그가 지금 그리스도의 형상 안에 거하게 된 것이다.

Yes, 우리가 타락하지 않은 새로운 육신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유혹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은, 지금, 영에게 육신이 복종한다. 로마서 8장이 말하는 모든 것은, (승리하면서 행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자들이며, 영에 능력에 의하여 육신을 정복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로마서 8:14)

(로마서 7장에 개심하지 않은 자와 6장과 8장에서 개심한 자, 그리고 그가 기록한 모든 다른 편지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다른 두 바울 사이를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장에서 우리가 오직 필요한 리스트는 그가 타하는 자신의 속성을 조사하고, 모든 다른 곳에서도 그가 타하는 자신의 속성을 대조한 것이다. 다음 도표가 예전에 바울과 현재 바울 사이가 가장 극적으로 다른 것과, 그가 법 아래 있었을 때에는 그리스도께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없음을 나타내었다, 사도가 확신하여 기록한 것은,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디모데후서 4: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세상에 있는 자들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기 때문에" 오직 자신이 참으로 죽고 개심한 자가 멸망의 함정으로부터 나와서 생명 강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개심하기 전 바울 (로마서 7 장)	개심한 후 바울 (로마서 6 장 8 장, 등등.)
죄 안에서 죽음 (로마서 7:9)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됨 (로마서 6:10, 8:2, 갈라디아서 2:20)
육신적인 상태 (로마서 7:14)	영적인 상태 (로마서 8:4,12; 고린도전서 14:37)
죄에 속박됨 (로마서 7:5,23)	영을 따라 행함 (로마서 6:7,18; 8:1, 갈라디아서 5:25)
자신을 억제하지 못함 (로마서 7:16-20)	자신을 억제함 (로마서 6:12, 고린도전서 9:27, 갈라디아서 5:23)
법에 의한 유죄 선고 (로마서 7:7-9)	은혜 아래에서 법과 조화를 이룸 (로마서 6:14,8:1; 디모데 전서 1:8)
고통하는 영 (로마서 7:24)	화평하는 영 (로마서 8:6, 빌립보서 4:11)
죄의식과 그의 행위들을 증오함 (로마서 7:15)	깨끗한 양심을 소유함 (로마서 8:16, 9:1; 사도행전 23:1)
죄된 몸의 멤버 (로마서 7:24)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 (로마서 6:23, 고린도전서 12:27)
그 안에 선한 것이 아무 것도 거하지 않음 (로마서 7:18)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심 (로마서 8:9, 고린도후서 1:10, 골로새서 1:27, 갈라디아서 2:20)

위에 일람표가 두 사울 사이에 막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또 그의 편지서 (로마서 7:4,5절과 8:1절에서) 마음이 작용된 기간을 소개한 것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분노하고 불안하던 바리새인이, 이 똑같은 복음으로 개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친절한 사도가 되어서, 구원의 기별을 왜곡하고 그들의 죄된 행실들을 정당화하여 사용하는 자들에게 눈물과 고뇌로 기록하였고, (고린도후서 2:4절), 오늘도 이 똑같은 기별을 메시아의 신부가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된 - 바울과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말씀을 적절하게 분할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좋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34- 36)

David.